

## 2014년 오페라 창작산실 음악공모 심사총평

오페라 창작산실 지원사업은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국내 창작 오페라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음악공모에 선정된 작품은 차년도 실연 심사의 기회를 얻게 되고 실연심사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우수작품제작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심의에는 총 9건(소서노 3건/미호 6건)이 신청되었고, ①작곡의 완성도 및 예술성(70%), ②향후발전가능성(30%)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미호'에 대한 음악작곡 총 1건을 선정하였다. '소서노'의 경우 적격한 작품이 없어 선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로 재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는 제출된 악보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 심의로 진행하였는데, 선정작(미호)의 경우 대본에 대한 적절한 음악적 표현을 하였고, 특히 오케스트레이션 측면에서 노래에 어울리는 악기 배치와 음색 조합을 통하여 극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잘 연출하였다. 또한 등장인물의 성격이 적절하게 잘 표현되었고, 장면에 따른 음악적 표현이 극적으로 잘 묘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독창적이면서 통일성 있는 음악어법으로 완성도 있는 오페라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이 기대되어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작품들 중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들이 있었으나, 음악적, 성악적 표현이 단조롭거나 대본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성격 등이 음악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선정된 작곡가는 대본가와와의 협업과정을 통하여 차년도 5월에 실연 심사를 받게 된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아쉽게 탈락한 작품도 향후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오페라 창작산실 지원사업을 통해 좋은 창작 오페라 작품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14 오페라 창작산실 음악공모 심의위원 일동